

통시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

김혜림*

Hyerim Kim (2023). Linguistic translation studies in China as examined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academic value of a linguistic approach through a diachronic analysis of trends in China's linguistic translation studies. To this end, the study first presents the classification frame of linguistic translation studies, then compiles existing studies on linguistic translation studies among those published in three Chinese journals, i.e. Chinese Translators Journal, Shanghai Journal of Translators, and Chinese Science & Technology Translators Journal, from their first issues up to February 2023. It then conducts a trend analysis of publication volume, keyword analysis, and citation analysis of the finally-selected papers: i) trends in publication volume is analyzed every four years to examine changes in the publication volume after adding up the total number of papers by year and the publication volume by sub-classification; ii) using the keyword analysis function of CiteSpace, keywords and co-occurrence of keywords that frequently appear by classification are identified; and iii) employing citation information provided by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a private publisher in China, the 20 most frequently-cited papers on linguistic translation studies are selected for their content analysis.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examining trends in China's linguistic translation studies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actually published research literature.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eywords: Linguistic translation studies, trend analysis of publication volume, keyword analysis, citation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주제어: 언어학적 번역연구, 게재량 추이 분석, 키워드 분석, 피인용 분석, 양적분석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중국의 번역연구는 1980년까지 어문학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국 나름의 이론 체계를 갖추기보다는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 판단이 우세했으나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서양의 번역 이론이 소개되었고 이는 9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서양의 어문학 이론이 구조주의에서 해체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9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도 구조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스크포스이론, 조작학과, 해석이론 등의 다양한 서양 이론이 소개됨으로써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다(呂俊 2001).

중국의 번역연구는 대체로 문학, 철학, 문화, 사회학, 언어학적 연구로 나뉘어 기술되는데 중국의 번역연구 전체 흐름을 고찰한 논의) 가운데 언어학적 연구만 특정해 놓고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첫째는 언어학적 관점의 번역연구는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언어학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번역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둘째는 언어학적 관점의 번역연구는 번역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언어학 이론이나 개념을 충분히 도입함으로써 전체 번역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입장으로 갈리는 데는 언어학적 번역연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전체 번역연구의 발전 흐름에서 언어학적 번역연구를 특정 시기나 단계의 특징으로 간주하는 연구(呂俊 2001; 魏清光 2018)에서는 그 연구대상이 텍스트이며 연구방법은 텍스트 대조 분석이고, 연구목적은 목표 텍스트와 원천 텍스트의 등가, 대등 관계 또는 의미의 확정성이다(魏清光 2018: 2). 즉, 소쉬르의 일반언어학에 기반한 구조주의 언어학적 번역연구로 제한된다.

한편, 언어학적 접근 방식을 번역연구의 다양한 접근 방식 중 하나로 보는 연구(黃希玲, 孫迎春 2003; 冉詩洋, 李德鳳, 2011)에서는 언어학의 새로운 발전에 주목

1) 란시양과 리더핑(冉詩洋, 李德鳳 2011)은 정의, 관점, 대상 등의 측면에서 번역연구의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았는데 언어학적 관점, 문학적 관점, 철학적 관점, 문화적 관점 등 당대 유행한 번역연구의 다양한 관점을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웨이징광(魏清光 2018)은 철학 발전에 빚대어 시대적 흐름에 따른 번역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언어학적 연구, 문화적 연구, 사회학적 연구로 나뉘어 기술하였다. 황시링과 쑨잉춘(黃希玲, 孫迎春 2003)은 언어학적 접근, 문화적 접근, 양자를 결합한 종합적 접근으로 나누었으며 이 가운데 언어학적 접근을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에 기반한 ‘등가’ 추구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언어학, 화용론, 텍스트언어학, 문체론 등 새로운 영역까지 포함시켰다.

한다. 50~60년대 어휘, 문법 위주에서부터 70년대 이후의 텍스트 언어학, 기능주의 언어학, 90년대의 화용론, 담화분석까지 언어학이 발전을 이룸에 따라(方梦之 2008: 9) 언어학적 번역연구 역시 음소, 어휘, 문법, 의미, 수사 측면의 등가에서 벗어나 화용, 텍스트, 문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黄希瑜, 孙迎春 2003: 8). 이들 연구는 언어학적 관점을 확대시켜 언어, 시간, 문화를 초월한 거시적 맥락에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연구한다(冉诗洋, 李德凤 2011: 30).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는 언어학적 번역연구를 시대에 뒤쳐진 방법론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META』에 수록된 논문 중 언어학적 관점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분석 방법에서도 대조분석, 담화분석, 코퍼스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冉诗洋, 李德凤 2011: 31).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刘香 2010; 郝军, 史国强 2010; 赵践 2011; 薛建华 2013)²⁾를 살펴보면, 우선 하위 범주를 제시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외 관련 학자 및 연구성과를 소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언어학적 번역연구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개별 학자나 연구 위주의 기술에 그쳐 언어학적 번역연구의 전체 모습을 조망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천량(陈浪)의 2008년 박사논문 『当代语言学途径翻译研究的新进展』³⁾이 유일하다.

천량(2008)에 따르면 언어학적 번역연구를 단순히 60~70년대 구조주의 언어학에 기반한 언어 간 대조분석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⁴⁾. 사실 중국은 90년대

2) 류샹(刘香 2010)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5년간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이론은 체계기능언어학, 화용론, 인지언어학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영역의 관련 연구결과물을 간략히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에 그쳐 구체적인 양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오권과 스귀장(郝军, 史国强 2010)은 언어 철학, 기능언어학, 화용론, 인지언어학, 코퍼스언어학 등 언어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당대 번역 이론과 연구 동향을 살펴면서 각 분야의 연구 관심, 주요 학자와 저서, 논문 등을 소개하였다.

자오젠(赵践 2011)은 ‘등가’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번역연구의 언어학적 관점 외에 담화분석, 체계기능언어학, 코퍼스언어학을 적용한 번역연구를 언급하고 번역학과 언어학의 유사점으로 연구초점의 전이 현상을 들었다. 즉 번역학과 언어학의 연구초점은 어휘, 문법에서 텍스트, 담화분석으로 또 언어 자체에서 맥락, 화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쉐첸화(薛建华2013)는 번역이론의 발전에 전통적인 언어학 관점과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리나(李娜 2014)는 Nida, Wilss, Catford 등의 관련 학자를 상세히 기술하고 담화분석, 화용론, 텍스트언어학, 코퍼스언어학 등 새로운 언어학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모든 번역 활동이 언어를 매개로 하므로 번역학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데 언어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본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2011년에 단행본 『当代语言学途径翻译研究的新发展——语篇·斡旋·调解·语境化』가 출간되었다.

4) “一些相关研究只要涉及语言学背景的译学研究, 就言必Nida, Carford, 没有看到近十几年来国际上语言学译论的新发展. (언어학적 번역연구라고 하면 Nida, Carford 등이 제시한 전통적인 언어학적 번

부터 체계기능언어학, 화용론, 인지언어학, 비평적 담화분석, 사회언어학 등과 같은 언어학의 하위 분야 또는 특정 이론이 번역에 적용되었으며 번역에 있어서 언어의 실제 사용에 주목하고 비언어적 요소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연구의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었다. 천량은 언어학적 번역연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원인으로 90년대 이후 서양의 관련 연구성과가 중국에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양의 언어학적 번역연구 성과를 소개하는데 집중하였던 바, 중국 번역학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일부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 현황을 살핀 논문(刘香 2010; 郝军, 史国强 2010; 赵践 2011)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연구 문헌을 바탕으로 한 양적 연구는 전무하여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 전반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언어학적 접근 방식의 학술적인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언어학적 번역연구란 언어학적 발견을 번역 실천에 적용한 것일 수도 있고 번역의 언어학적 이론일 수도 있다(Shuttleworth and Cowie 1997: 94). 이는 “언어 분석을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아, 언어학 분야의 성과를 적용하는 모든 번역연구(陈浪 2008: 15)”로 정의한 천량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에 입각하여 게재량, 키워드, 피인용 중심의 양적 분석을 통해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연구대상 수집 과정

우선 『中国翻译』, 『上海翻译』(『上海科技翻译』포함⁵⁾), 『中国科技翻译』⁶⁾ 3개 학

역 이론만 다루고 최근 십여 년간 언어학적 번역연구의 새로운 발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陈浪 2008: 2).

5) 『上海科技翻译』는 2005년부터 『上海翻译』로 학술지명을 변경하였다.

6) 『中国翻译』, 『上海翻译』, 『中国科技翻译』는 중국의 통번역 관련 학술지 가운데 핵심 학술지(核心期刊)로 선정되었으며 각각 1979년, 1986년, 1988년에 창간되었다.

술지 창간호부터 2023년 2월까지 게재된 총 12,814편의 논문⁷⁾을 대상으로 언어학적 번역연구 논문을 추출하였다. 언어학적 번역연구란 그 자체로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하여 먼저 하위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별로 관련 연구를 별도로 추출한 후, 이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김혜림과 웨이잉(2020)에서 제시한 언어학적 번역연구의 분류체계를 활용하되, 여기에 천량(2008)을 참고하여 분류 틀을 세우고자 한다.

천량(2008)에 따르면 90년대 이후의 언어학은 언어 체계에 집중했던 전통적인 언어 연구에서 맥락을 고려한 화용적 연구와 언어와 문화사회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담화 연구로 그 중심이 옮겨진다. 언어학적 번역연구 또한 이러한 발전 흐름의 영향을 받아 ‘화용’과 ‘담화’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다. 김혜림과 웨이잉(2020)의 분류 틀에서는 음운, 통사구조, 의미, 수사, 문체 등 전통적인 연구 분야 외에 화용과 텍스트라는 새로운 분야를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범위를 확장하여 ‘담화’로 바꾸었다⁸⁾. 수정된 분류 틀과 검색 시 사용된 주제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언어학적 번역 연구 분류

대분류	언어학적 소분류	언어학적 번역 연구의 세부 내용	검색어
구조	음운	음역	音译
	통사 구조	특정 통사구조에 대한 번역, 양 언어 간 통사구조의 대조분석, 번역에서 통사구조 분석의 활용	语法/句式/句型
응용	의미	어휘 의미의 통시적 분석, 특정 어휘의 의미 분석과 번역, 의미 등가에 기초한 번역	语义
	수사	수사학, 수사 방식의 번역	修辞
	문체	문체학, 각종 장르의 문체적 특징	文体
	화용	직식, 전제, 화행, 공손성 등 언어 사용, 언어 사용 주제, 언어 사용 맥락에 관한 논의	语用/言语行为/会话原则/礼貌原则 ⁹⁾

7) CNKI의 ‘고급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문헌 출처를 『中国翻译』 or 『上海翻译』 or 『上海科技翻译』 or 『中国科技翻译』로 지정하고 시간 범위에서 발표날짜를 1979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8) 천량(2008)에 따르면, 담화분석은 텍스트 구조에 주목한 언어구조 위주의 담화분석과 텍스트 외적 요소에 주목한 문화사회 위주의 담화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텍스트의 정보구성, 연결성, 응집성 등에 관한 연구는 전자에 속한다.

	답화	텍스트의 구조와 결속성, 응집성 등에 대한 분석 또는 답화분석을 활용한 텍스트와 사회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	语篇/篇章/衔接/话语分析
기능	문화	신조어/관용어, 문화적 배경에서 텍스트에 관한 분석	新词/外来语/俗语/惯用语
	사회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 현상 및 번역에 대한 논의	社会语言学
	인지/신경	인지언어학, 신경언어학	认知/神经

먼저 중국의 학위논문 및 저널 논문 검색 사이트 CNKI¹⁰⁾에서 검색 범위를 3개 학술지로 한정된 후, 각 소분류의 내용과 특징을 고려하여 선정된 검색어로 관련 논문을 모두 추출한다¹¹⁾.

다음으로 수동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 검색된 논문 가운데 서평이나 번역 작품에 대한 평가, 번역 대회 후기, 기관 소개, 투고 및 학회 공지, 인터뷰 등 연구논문이 아니거나 언어학적 번역연구가 아닌 논문을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통사구조’ 관련 논문 추출의 경우, 먼저 ‘语法(문법),’ ‘句式/句型(문장 구조)’를 주제로 검색하여 254편의 논문을 확인하였다. 이후, 수동 선별 과정을 거쳐 1차 검색 결과에서 번역 관련 저서에 대한 소개 및 평론¹²⁾과 번역문 감상 또는 번역보조도구에 대한 소개 및 평가¹³⁾를 제외시켰다.

이외에도 언어학적 번역연구로 보기 어려워 제외한 논문이 있다. 일례로 류미칭(刘必庆 1996)은 「翻译理论研究展望(번역 이론 연구 전망)」에서 번역학 연구의

9) 천량(2008)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언어학적 번역연구에서 적용된 화용론 이론은 주로 화행이론, 협력이론, 공손성이론이다.

10)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中国知网), www.cnki.net/.

11) 각주 7)에서 언급한 검색결과에서 소분류의 검색어를 ‘주제어(主题)’로 설정한 후 ‘결과내 검색’ 기능을 사용하였다.

12) 제외된 관련 논문 목록: 杨子, 王雪明. (2014). 「《马赛克重构—翻译研究的构式语法途径》述介」. 『上海翻译』; 张梅岗. (2013). 「语言的形式和功能匹配理论—评《英汉功能翻译理论与实践》」. 『中国科技翻译』; 王建国. (2009). 「刘必庆著《新编汉英对比与翻译》述评」. 『中国科技翻译』; 刘海涛. (2005). 「《机器翻译研究》评介」. 『中国科技翻译』; 杨楠. (1992). 「《科技俄语常用句型例解》简评」. 『中国科技翻译』.

13) 제외된 관련 논문 목록: 坎农巴克利, 姜建华 译. (1997). 「我打工的体会」. 『中国翻译』; 许丹. (1992). 「写作和翻译工作的好助手—用计算机自动检查文章的语法和风格」. 『中国翻译』; 范者正. (1999). 「怎样选择合适的专业翻译软件」. 『中国科技翻译』; 贾欣岚, 张健青. (2002). 「使用翻译软件的译前准备」. 『中国科技翻译』; 赵燕. (2018). 「翻译软件进科技翻译课堂: 实验、问题与对策」. 『中国科技翻译』.

발전 흐름을 고찰하였으나 중국의 번역연구 가운데 언어학적 연구가 있다는 선언적 기술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니완빈과 류즈(倪传斌, 刘治 2005)는 「语料库数据驱动技术在科技翻译教学中的应用(과학기술 번역 교육에서 코퍼스 데이터 기술의 적용)」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적 문제를 다루면서 번역 과정의 통사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이를 언어학적 번역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수동 선별 과정을 통해 제목, 키워드, 개요 및 내용을 살피면서 이들 두 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언어학적 번역연구로 보기 어려운 7편¹⁴⁾의 논문을 제외시켰다.

한편 주제가 두 개 이상 겹치는 논문이 다수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 쑨옌웨이(孙艳伟 2013)의 「专利摘要汉译英常见错误探析(중영 특허 번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분석)」¹⁵⁾은 ‘통사구조’와 ‘의미’ 관련 논문 검색 시 중복하여 검색된다. 또한 왕빈과 어우양취안(王彬, 欧阳铨 2002)의 「英语含蓄否定句分类及汉译研究(영어의 함축적 부정 구문의 분류 및 중역 연구)」¹⁶⁾은 ‘의미’, ‘통사구조’, ‘수사’, ‘화용’ 네 가지 소분류 관련 논문을 검색할 때 모두 확인된다.

이처럼 주제 검색 시 중복된 논문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텍스트 분석에서 한 가지 측면만 집중하기보다 다층위, 다차원으로 분석하면서 화용적, 문체적 효과를 다루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제어 검색 시 동일 논문이 두 개 이상의 소분류에 중첩하여 속하는 경우, 자동 검색 결과를 그대로 따랐으며 전체 게재량 추이 분석에서만 중복논문을 걸러냈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여 논문 추출 및 선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추출된 소분류의 논문 데이터를 모두 합친 후에, 중복 데이터 삭제 도구를 이용해서 중복된 논문 데이터를 삭제한다.

14) 刘必庆. (1996). 「翻译理论研究展望」. 『中国翻译』; 刘必庆. (1989). 「论中国翻译理论基本模式」. 『中国翻译』; 周笃宝. (2000). 「继承传统译论, 建立科学翻译学」. 『中国翻译』; 张政. (2004). 「机器翻译刍议」. 『中国科技翻译』; 倪传斌, 刘治. (2005). 「语料库数据驱动技术在科技翻译教学中的应用」. 『中国科技翻译』; 孙逸群, 周敏康. (2017). 「机器翻译质量综合评价方法研究」. 『中国科技翻译』; 段小莉. (2020). 「在转换生成语法和萨丕尔-沃尔夫假说之间——论乔治·斯坦纳阐释学翻译理论的源起」. 『中国翻译』.

15) 쑨옌웨이(2013)는 특허 번역에서 나타난 오류를 통사 및 의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6) 왕빈과 어우양취안(2002)은 영어의 함축적 부정구문이라는 특정 형식을 의미, 통사, 수사, 화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국어 번역(中譯) 문제를 연구하였다.

2.2. 분석 절차

최종 선별된 논문을 대상으로 게재량 추이 분석, 키워드 분석, 피인용 분석을 진행한다. 게재량 추이 분석은 4년 간격으로 하되, 연도별로 전체 논문과 소분류별 논문 게재량을 정리한 후 게재량의 변화 추이를 살핀다. 키워드 분석을 위해 문헌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CiteSpace¹⁷⁾를 사용하였다. CiteSpace의 키워드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분류별로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와 키워드 공현 현황을 파악한다. ‘키워드 공현’이란 동일 논문에서 공동으로 출현한 키워드를 의미하는데 키워드의 공동 출현이 많을수록 다양한 연구 주제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분야의 발전 흐름과 관심 주제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NKI에서 제공한 피인용 정보를 활용해 언어학적 번역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20편의 논문을 추린 후, 이들 논문의 내용을 분석한다.

3. 분석 결과

3.1. 연도별 논문 게재 추이

<표1>에 제시된 검색어로 언어학적 번역연구의 각 소분류에 해당하는 연구논문을 추출한 후, 수동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 대상을 수집하였다. 언어학적 번역연구는 주제가 두 개 이상 겹치는 논문이 많기 때문에 전체 언어학적 번역연구의 논문 게재 추이를 분석하기 전에 중복 데이터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 소분류의 논문을 모두 합쳐 총 2,042편의 논문을 확보하였으나 CiteSpace의 중복 데이터 삭제 기능을 사용하여 이 중에 325편을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中国翻译』, 『上海翻译』, 『中国科技翻译』 3개 학술지에 창간호부터 2023년 2월까지 실린 언어학적 번역연구 논문은 1,717편으로 확인되었다. 논문

17) 미국 Drexel University의 Chen Chaomei 박사가 2004년에 개발한 Java 플랫폼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최신 버전 CiteSpace 6.1.R6을 사용하였다(<http://cluster.ischool.drexel.edu/~cchen/citespace/download/>). CiteSpace로는 저자 간, 연구기관 간, 발행 국가 간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으며 키워드 분석도 가능하다. 자세한 설명은 Chen(2006), 陈悦 외(2014) 참조.

게재량을 4년 간격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¹⁸⁾. 이를 도표의 형식으로 바꾸면 <그림1>과 같다.

표 2. 언어학적 번역연구 연도별 논문 게재량

연도	1980~1983	1984~1987	1988~1991	1992~1995	1996~1999	2000~2003	2004~2007	2008~2011	2012~2015	2016~2019	2020~2023	합계
언어학적 번역 연구	29	69	99	123	140	233	237	231	210	194	152	1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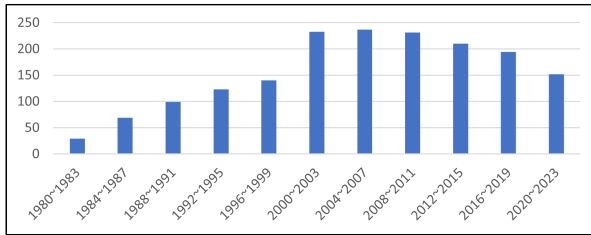


그림 1. 언어학적 번역연구 연도별 논문 게재 추이

『中国翻译』는 1979년에 창간되었으나 창간 당해연도에는 언어학적 번역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이 없다¹⁹⁾. <그림 1>을 보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논문 게재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上海翻译』는 1986년에 창간되었고 『中国科技翻译』는 1988년에 창간되었기 때문에 1985년까지 중국에 번역학 관련 학술지는 『中国翻译』이 유일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논문 게재량의 빠른 확대는 신규 학술지의 출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후 2000년까지 언어학적 접근의 논문 게재량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평균 58편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2003년에는 73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최고의 게재율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소폭의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연평균 50편을 상회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²⁰⁾.

이어서 언어학적 번역연구의 하위 분야별 논문 게재 추이를 살펴보자. 먼저 언어 구조 관련 연구의 연도별 논문 게재량을 4년 간격으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18) 전체 언어학적 번역연구 및 소분류의 연도별 논문 게재량 데이터는 <부록1> 참조.

19) CNKI에서의 검색 결과로 1979년 『中国翻译』에 게재된 논문은 총 10편이다.

20) 2023년도는 1, 2월만 통계에 포함되므로 연평균 논문 게재량 산출 시 2023년도분은 제외시켰다.

표 3. 언어 구조 관련 연도별 논문 게재량

분류 \ 연도	1980~1983	1984~1987	1988~1991	1992~1995	1996~1999	2000~2003	2004~2007	2008~2011	2012~2015	2016~2019	2020~2023	합계
	음역	10	12	19	35	25	23	21	33	34	38	33
통사	9	16	17	21	25	33	33	35	19	15	20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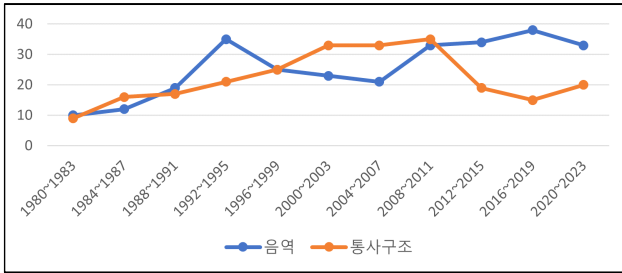


그림 2. 언어 구조 관련 연도별 논문 게재 추이

언어 구조를 더 세분하면 음역과 통사구조로 나뉜다. <그림 2>를 보면, 하위 소분류 논문 게재 추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음역과 통사구조 관련 논문의 게재량은 비슷한데 음역 관련 논문(283편)이 통사구조 관련 논문(243편)보다 조금 많다.

연도별 게재량 추이를 보면 음역의 경우, 1980년부터 1992년까지 꾸준히 늘다가 1992부터 1995까지 4년 간 35편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정점에 달했다. 이후 소폭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통사구조의 경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8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어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섰으며 2012년 이후로는 연평균 게재량이 5편에 그쳤다.

언어 응용을 세분하면 의미, 수사, 문체, 화용, 담화로 나뉜다. 연도별 논문 게재량은 아래 <표4>와 같다. 전체 게재량을 보면, 의미 관련 논문이 318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문체, 담화, 수사의 순으로 각각 225편, 204편, 194편이 발표되었다. 화용 관련 논문은 162편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표 4. 언어 응용 관련 연도별 논문 게재량

분류	연도										합계	
	1980~1983	1984~1987	1988~1991	1992~1995	1996~1999	2000~2003	2004~2007	2008~2011	2012~2015	2016~2019		2020~2023
의미	1	9	9	11	26	53	54	49	53	37	16	318
수사	1	16	19	21	19	21	18	23	20	15	21	194
문체	6	8	17	21	19	30	36	28	29	20	11	225
화용	0	1	2	10	6	29	34	23	25	22	10	162
담화	0	3	2	6	11	36	44	39	25	15	23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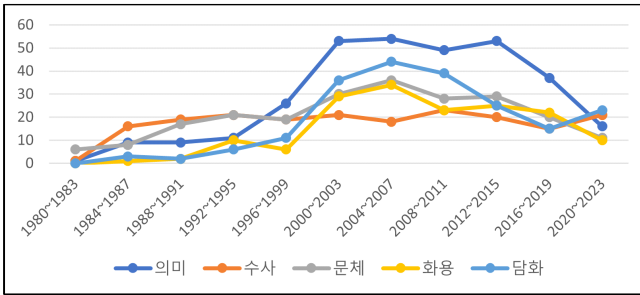


그림 3. 언어 응용 관련 연도별 논문 게재 추이

<그림 3>에서 언어 응용의 하위 소분류별로 논문 게재량 추이를 보면 수사를 제외하고는 의미, 문체, 화용, 담화 모두 비슷하다.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1996년부터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데 2004~2007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후엔 천천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은 언어학적 번역연구 전체 논문 게재 추이와 비슷하다.

게재량이 가장 많은 의미 분야를 보자. 초기엔 수사나 문체보다 적었으나 1996년부터 언어 응용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게재율을 보였는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3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정점에 달했다. 화용과 담화 쪽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2004~2007년에 연평균 8.5편, 11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 게재량을 기록했다. 문체 분야는 변화폭이 의미, 화용, 담화보다 적은 편이나 2004~2007년에 연평균 9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정점에 달했다. 수사 분야는 다른 네 분야와 다르게 1986년부터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음으로 언어 기능, 즉 문화와 사회 관련 연구의 논문 게재 추이를 살펴보겠다. 언어 기능은 문화와 사회로 나뉘는데 사회 관련 연구는 언어학적 번역연구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줄곧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문화 관련 연구, 즉 외래어, 관용어, 속어 등 문화적 측면에서 언어 현상을 다룬 연구는 1980년부터 1991년까지 게재 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1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2015년에 정점에 달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최근까지 빠른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5. 언어 기능 관련 연도별 논문 게재량

연도 분류	1980~1983	1984~1987	1988~1991	1992~1995	1996~1999	2000~2003	2004~2007	2008~2011	2012~2015	2016~2019	2020~2023	합계
	문화	2	9	20	11	20	20	22	12	25	8	
사회	0	1	3	0	1	1	0	0	1	3	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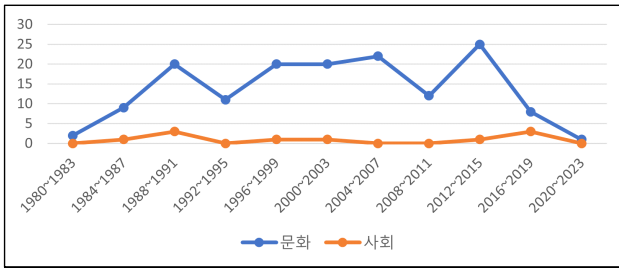


그림 4. 언어 기능 관련 연도별 논문 게재 추이

인지/신경 관련 연구는 신생 분야의 연구성과를 적용함으로써 논문 게재량이 줄곧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후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4편을 상회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6. 인지/신경 관련 연도별 논문 게재량

연도 분류	1980~1983	1984~1987	1988~1991	1992~1995	1996~1999	2000~2003	2004~2007	2008~2011	2012~2015	2016~2019	2020~2023	합계
	인지/신경	0	1	0	1	4	29	34	48	35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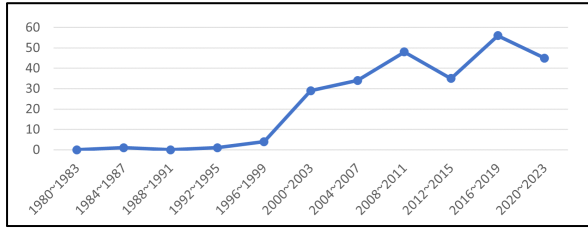


그림 5. 인지/신경 관련 연도별 논문 게재 추이

3.2. 키워드 분석

본 절에서는 CiteSpace를 활용한 키워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다. 키워드에는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의 관심 주제와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시각화 결과’를 보면, 하나의 노드(node)가 하나의 키워드를 대표하며 노드의 크기는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나타낸다. 노드를 연결한 선은 공동으로 출현하는 키워드, 즉 공현 키워드를 의미한다. 선과 노드의 색깔은 키워드의 출현 시기를 나타내는데 출현 시기가 오래된 키워드는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출현 시기가 현재와 가까워지면서 빨간색으로 변하며 색이 진할수록 키워드의 출현 시기는 현재에 가깝다.

3.2.1. 소분류별 키워드 분석

음역 관련 연구에서는 ‘英译(영역)’, ‘翻译策略(번역전략)’, ‘术语(전문용어)’ 등의 키워드가 가장 많이 출현한다. <그림 6>을 통해 이들 고빈도 키워드의 대표 노드와 주변의 선이 진한 빨간색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 키워드는 최근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내용으로 이 외에 최근 들어 출현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로는 ‘翻译方法(번역방법)’, ‘零翻译(영번역)²¹⁾’, ‘意译(의역)’ 등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科技术语(과학전문용어)’, ‘音译法(음역법)’, ‘外来语(외래어)’ 등의 키워드는 과거의 연구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개별 어휘에 대한 번역기법으로서의 음역법에 대한 논의가 다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음역

21) ‘零翻译(영번역)’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학계의 통일된 정의는 없다. 중국 학자 추마오루(邱懋如 2001)에 따르면 ‘영번역’은 ‘생략’과 ‘음역(transliteration)’ 또는 ‘이전번역(transference)’을 말하며 ‘이전번역’이란 원전 언어의 어휘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도착 언어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零翻译(영번역)’은 생략과 차용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을 번역의 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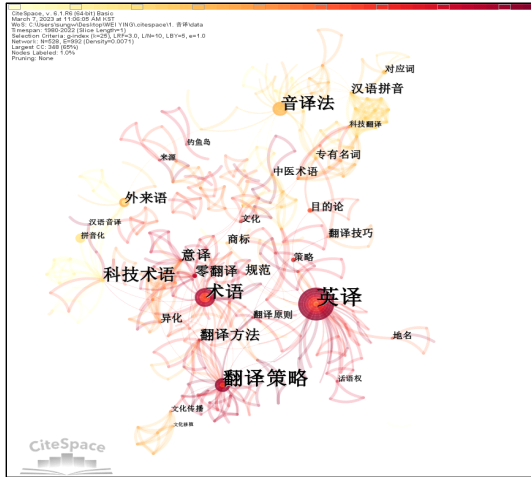


그림 6. 음역 관련 키워드 분석 시각화 결과

표 7. 음역 관련 고빈도 키워드(22)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英译 영역	24	音译法 음역법	12	翻译方法 번역방법	7
翻译策略 번역전략	19	科技术语 과학전문용어	12	外来语 외래어	6
术语 전문용어	14	意译 의역	7	零翻译 영번역	6

통사구조 관련 연구의 고빈도 키워드는 <표8>과 같다. 음역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는 ‘英译(영역)’으로 최근에도 중국의 번역연구 가운데 영어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科技英语(과학기술영어)’와 ‘科技翻译(과학기술번역)’도 주목할 만하다.

22) 고빈도 키워드 분석에서 해당 분야 전체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제외시켰다. 예를 들어 음역 관련 연구의 키워드 분석에서 ‘번역’, ‘음역’ 등의 키워드는 제외시켰다. 또한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CiteSpace의 어휘 합병(Alias) 기능을 사용하여 비슷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에 대해 합병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英译(영역)’, ‘汉译英/汉英翻译(중영번역)’ 등 비슷한 의미를 지닌 키워드는 하나로 합병하였다. 합병된 키워드에 대한 기록은 <부록> 참조.

표 8. 통사구조 관련 고빈도 키워드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英译 영역	19	疑问句 의문문	9	机器翻译 기계번역	5
科技英语 과학기술영어	17	祈使句 명령문	7	助动词 조동사	5
科技翻译 과학기술번역	10	定语从句 관형사절	6	翻译技巧 번역기법	5
翻译策略 번역전략	9	翻译方法 번역방법	6	介词短语 개사명사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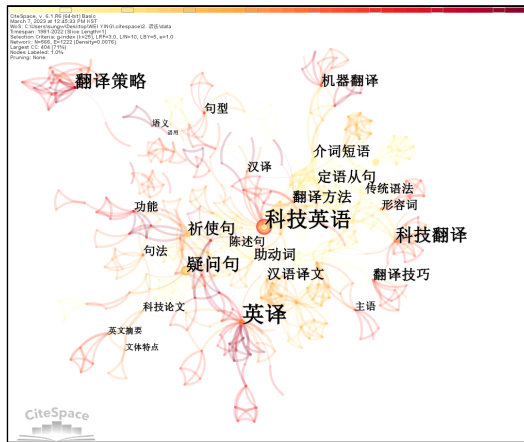


그림 7. 통사구조 관련 키워드 분석 시각화 결과

<그림 7>의 노드와 공현 키워드 연결선색을 보면, ‘科技英语(과학기술영어)’는 비교적 과거에 많이 사용된 반면, ‘科技翻译(과학기술번역)’은 최근에 사용 빈도 수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과거 중국의 번역연구는 대부분 영어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의 연구 역시 영어 관련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이거나 최근의 연구는 영어 자체의 특징에 주목한 과거의 연구와 달리 번역에서 영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 실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고빈도 키워드 가운데 ‘疑问句(의문문)’, ‘祈使句(명령문)’, ‘陈述句(평서문)’, ‘助动词(조동사)’, ‘定语从句(관형사절)’, ‘介词短

语(개사명사구)’ 등 문장구조나 문법성분 등 전통 문법에 속한 키워드는 주로 연한 노란색으로 비교적 과거에 주목받았던 반면 ‘翻译策略(번역전략)’, ‘机器翻译(기계번역)’ 등은 최근 연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의미 관련 연구의 고빈도 키워드는 <표9>와 같다. 이 중 ‘用法特征(용법특징)’이 22회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汉英翻译(중영번역)’, ‘科技翻译(과학기술번역)’, ‘潜在语义(내포의미)’가 각각 16회, 10회, 9회로 나타났다.

표 9. 의미 관련 고빈도 키워드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用法特征 용법특징	22	科技英语 과학기술영어	7	翻译策略 번역전략	5
汉英翻译 중영번역	16	翻译方法 번역방법	6	衔接 연결	5
科技翻译 과학기술번역	10	翻译教学 번역교육	5	误译 오역	5
潜在语义 내포의미	9	机器翻译 기계번역	5	汉译 중역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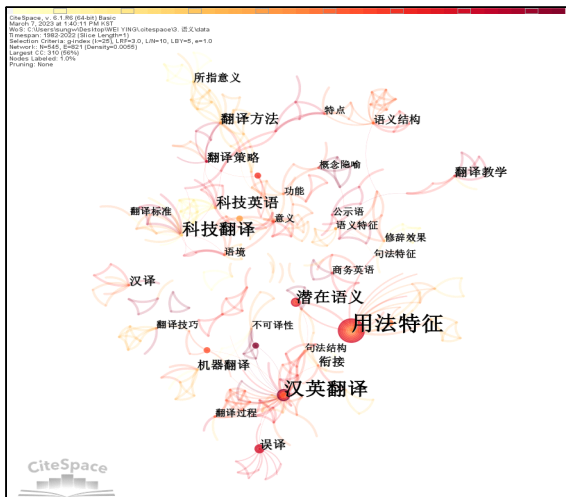


그림 8. 의미 관련 키워드 분석 시각화 결과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아래쪽에 모여 있는 ‘用法特征(용법특징)’, ‘汉英翻

译(중영번역)’, ‘潜在语义(내포의미)’ 등은 진한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어 최근에 나타난 키워드임을 말해준다. 위쪽에 위치한 ‘翻译方法(번역방법)’은 상대적으로 연한색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찍 출현한 키워드로 볼 수 있다. <그림 8>에서 ‘翻译方法(번역방법)’의 아래쪽에 위치한 ‘翻译策略(번역전략)’은 다른 분야에서도 출현 빈도수가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승빙(熊兵 2014)은 중국에서는 ‘翻译方法(번역방법)’과 ‘翻译技巧(번역기법)’을 ‘翻译策略(번역전략)’과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한장홍(韩江洪 2015)은 2000년 이전엔 학자 대부분이 ‘翻译方法(번역방법)’이나 ‘翻译技巧(번역기법)’이란 용어를 사용한 반면, 2000년 이후엔 ‘翻译策略(번역전략)’을 사용한 학자가 더 많다고 밝혔다.

수사 관련 연구의 고빈도 키워드는 <표10>과 같다. 이 가운데 ‘수사’가 포함된 키워드로는 ‘修辞手段(수사방식)’이 30회로 가장 많고 ‘修辞功能(수사기능)’이 9회, ‘修辞特点(수사특징)’이 5회, ‘修辞效果(수사효과)’와 ‘修辞对比(수사비교)’가 각각 4회로 나타났다. 주제 측면에서는 여타 소분류와 유사하게 과학기술²³⁾ 텍스트의 번역을 다루는 연구가 가장 많았다. 특기할 만한 점은 ‘新闻标题(신문기사제목)’이 고빈도 키워드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표 10. 수사 관련 고빈도 키워드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修辞手段 수사방식	30	英译 영역	7	修辞效果 수사효과	4
科技翻译 과학기술번역	15	翻译策略 번역전략	6	修辞对比 수사비교	4
科技英语 과학기술영어	11	新闻标题 신문기사제목	5	直译法 직역법	4
修辞功能 수사기능	9	修辞特点 수사특징	5	翻译技巧 번역기법	4

키워드의 출현 시기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사’ 관련 키워드는 대부분 과거에 등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 많이 사용된 키워드로는 ‘翻译策略(번역전략)’, ‘修辞对比(수사비교)’, ‘修辞意识(수사의식)’, ‘外宣翻译(대외홍보번역)’, ‘文学翻译(문학번역)’이 보인다.

23) ‘科技翻译(과학기술번역)’은 15회, ‘科技英语(과학기술영어)’가 11회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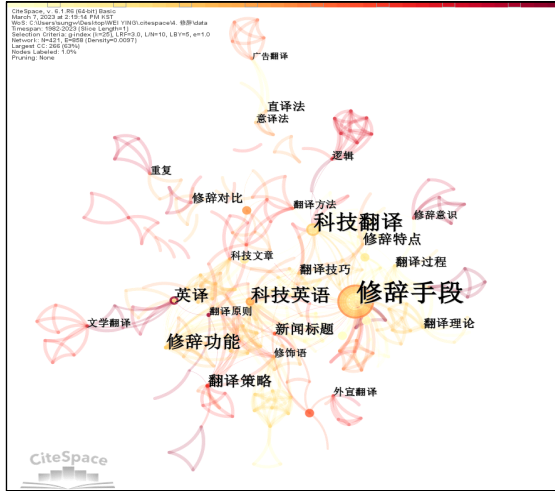


그림 9. 수사 관련 키워드 분석 시각화 결과

문체 관련 고빈도 키워드는 <표11>과 같다. 문체 관련 키워드 분석 시각화 결과 <그림 10>을 수사 분야 키워드 분석 결과 <그림 9>와 비교하면, 문체에서 빨간색 부분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문체 관련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논문 게재 추이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科技文体(과학기술 텍스트 문체)’가 36회로 가장 많아 문체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텍스트를 다루는 연구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科技文体(과학기술 텍스트 문체)’ 외에 ‘科技翻译(과학기술번역)’, ‘科技英语(과학기술영어)’, ‘科技论文(과학기술논문)’, ‘科技文章(과학기술 텍스트)’도 출현 빈도수가 높다. 주제 차원에서 보면, 과학기술 외에 ‘商务英语(비즈니스영어)’, ‘法律英语(법률영어)’도 발견되는데 이로써 상업문서나 법률문서와 같이 문체적으로 특징이 강한 특정 분야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키워드의 출현 시기를 보면, ‘商务英语(비즈니스영어)’는 진한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과학기술 관련 키워드와 ‘法律英语(법률영어)’는 비교적 연한 노란색으로 나타나 과학기술 및 법률 텍스트의 문체 연구는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되었으며 비즈니스 텍스트의 문체 연구는 최근에 늘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1. 문체 관련 고빈도 키워드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科技文体 과학기술 텍스트의 문체	36	翻译策略 번역전략	13	名词化 명사화	5
科技翻译 과학기술번역	19	英译 영역	12	科技论文 과학기술논문	4
文体特点 문체특징	19	文体学 문체학	9	科技文章 과학기술 텍스트	4
科技英语 과학기술영어	18	商务英语 비즈니스영어	6	法律英语 법률영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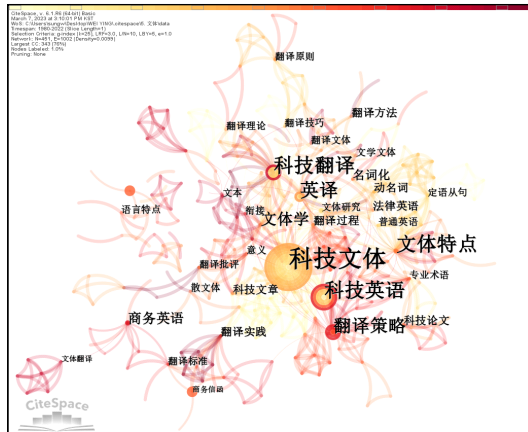


그림 10. 문체 관련 키워드 분석 시각화 결과

언어 응용 분야에서 게재량이 가장 적은 화용은 고빈도 키워드의 출현빈도도 적은 편이며 키워드 분석 시각화 결과도 비교적 분산되어 있다. 주제별로 보면, ‘语用功能(화용적 기능)’, ‘语用学(화용론)’, ‘语用翻译(화용적 번역)’, ‘语用失误(화용적 오류)’, ‘语用分析(화용분석)’, ‘语用等效(화용적 등가)’, ‘语用意义(화용적 의미)’ 등 ‘화용’ 관련 키워드가 대부분이며 그 밖에 ‘关联理论(관련성이론)’를 언급한 연구도 있다. <그림 11>을 통해 ‘화용’ 관련 키워드는 대부분 최근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화용 관련 고빈도 키워드

키워드	출현빈도	키워드	출현빈도
语用功能 화용적 기능	7	语用失误 화용적 오류	5
语用学 화용론	7	语用分析 화용적 분석	4
关联理论 관련성이론	7	科技翻译 과학기술번역	4
语用翻译 화용번역	6	语用等效 화용적 등가	4
语境 맥락	6	语用意义 화용적 의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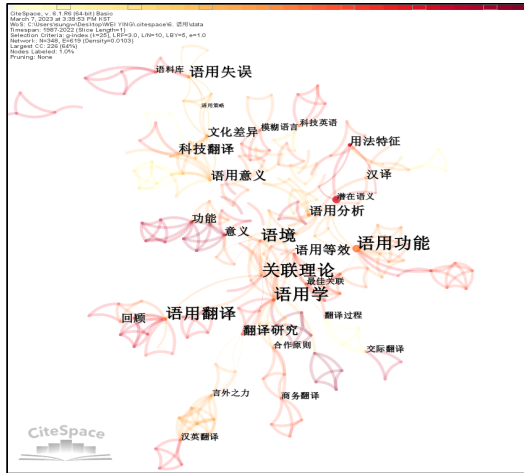


그림 11. 화용 관련 키워드 분석 시각화 결과

담화 분야 고빈도 키워드는 <표13>과 같다. 시각화 결과, 이 중에 ‘翻译单位(번역단위)’, ‘翻译教学(번역교육)’은 비교적 일찍 출현한 키워드로 보인다. 이로써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문장 이상을 번역단위로 보고 이를 교육에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衔接(결속성)’, ‘连贯(응집성)’, ‘语篇分析(텍스트 분석)’, ‘篇章结构(텍스트 구조)’ 등 텍스트언어학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표 13. 담화 관련 고빈도 키워드

키워드	출현빈도	키워드	출현빈도	키워드	출현빈도
衔接 연결성	14	科技英语 과학기술영어	7	翻译技巧 번역기법	5

英译 영역	12	语境 맥락	6	篇章结构 텍스트구조	4
翻译单位 번역단위	9	科技翻译 과학기술번역	6	话语分析 담화분석	4
翻译策略 번역전략	8	翻译教学 번역교육	5	科技语篇 과학기술 텍스트	4
连贯 결속성	8	语篇分析 텍스트분석	5	功能 기능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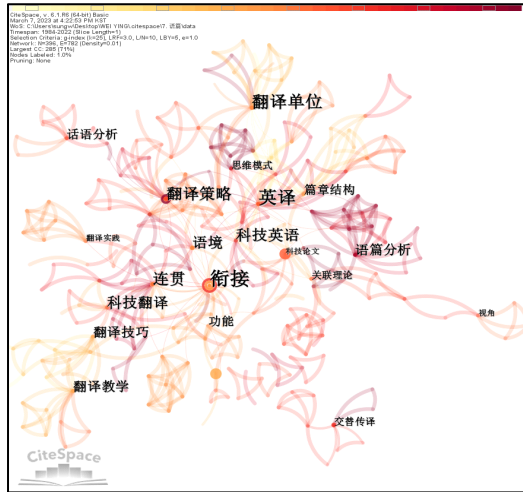


그림 12. 담화 관련 키워드 분석 시각화 결과

‘언어 기능’의 하위분야로 문화와 사회가 있는데 사회 관련 논문은 10편에 불과해 고빈도 키워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문화 관련 키워드 중 ‘外来语(외래어)’가 40회로 가장 많았고 ‘新词(신조어)’는 29회로 그 뒤를 이었다. 출현 시기로 보면 ‘外来语(외래어)’는 비교적 일찍 출현했고 ‘新词(신조어)’는 최근 연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 외에 ‘惯用语(관용어)’도 연한 노란색 존에 위치해 있어 관련 연구가 과거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政治等效(정치적 등가)’, ‘外交新词(외교 신조어)’ 등으로 구성된 빨간색 존인데 최근 들어 문화의 시각에서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번역 연구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문화 관련 고빈도 키워드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外来语 외래어	40	惯用语 관용어	7	科技新词 과학기술 신조어	4
新词 신조어	29	科技翻译 과학기술번역	5	科技日语 과학기술일본어	3
英译 영역	10	音译 음역	5	政治等效 정치적 등가	3
科技词汇 과학기술어휘	10	翻译策略 번역전략	5	旧词新义 구어신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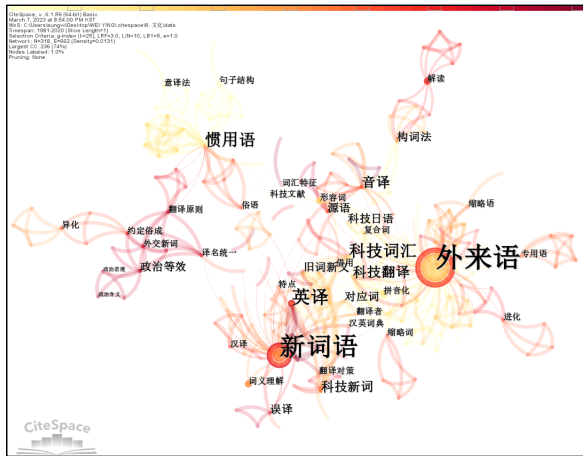


그림 13. 문화 관련 키워드 분석 시각화 결과

인지/신경언어학을 번역 연구에 접목한 키워드를 살펴보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통역에 관한 연구가 많다는 점이다. 인지/신경 관련 연구의 고빈도 키워드를 정리한 <표15>에서 보듯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는 ‘同声传译(동시 통역)’이며 그 밖에 ‘口译(통역)’, ‘交替传译(순차통역)’ 관련 연구도 많다. 한편 인지/신경을 ‘翻译教学(번역교육)’에 적용한 연구가 보이며 ‘翻译过程(번역과정)’이나 ‘实证研究(실증연구)’와 같이 연구의 대상 및 방법론 측면에서도 여타 주제와 다른 차별성이 눈에 띈다.

표 15. 인지/신경 관련 고빈도 키워드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同声传译 동시통역	15	翻译策略 번역전략	11	语境 맥락	6
翻译教学 번역교육	12	翻译过程 번역과정	8	交替传译 순차통역	4
口译 통역	12	隐喻 은유	7	认知机制 인지기제	4
关联理论 관련성 이론	12	实证研究 실증연구	7	框架理论 프레임 이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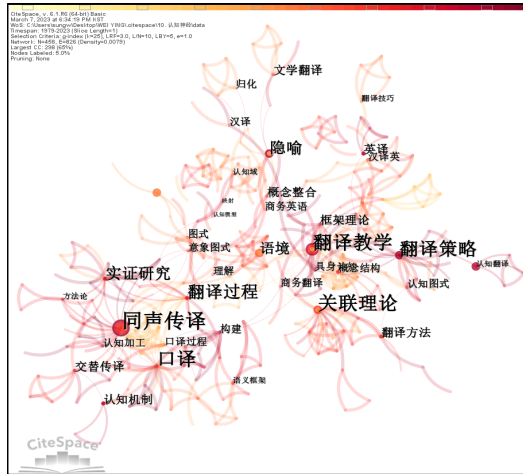


그림 14. 인지/신경 관련 키워드 분석 시각화 결과

3.2.2. 전체 키워드 분석

언어학적 번역연구 논문 1,717편 전체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의 주요 관심 분야, 발전 흐름, 시기별 관심 주제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고빈도 키워드를 정리하면 아래 <표16>와 같다.

표 16. 언어학적 번역 고빈도 키워드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英译 영역	99	音译 음역	28	语境 맥락	17

翻译策略 번역전략	60	科技文体 과학기술 텍스트 문체	24	认知 인지	17
科技翻译 과학기술번역	52	外来语 외래어	24	关联理论 관련성 이론	16
科技英语 과학기술영어	48	术语 전문용어	18	同声传译 동시통역	14
修辞手段 수사방식	30	用法特征 용법특징	17	功能 기능	14

고빈도 키워드 중 ‘英译(영역)’의 출현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다음으로 ‘翻译策略(번역전략)’, ‘科技翻译(과학기술번역)’, ‘科技英语(과학기술영어)’, ‘汉译英(중영번역)’이 각각 60회, 52회, 48회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앞서 분류별 키워드 분석에서도 이 네 개의 키워드는 거의 모든 분야에 등장한다. 이로써 언어학적 번역연구의 모든 분야에서 번역전략, 과학기술 텍스트의 번역이 다뤄졌으며 언어적으로는 중국어 텍스트의 영어번역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를 통해 각 키워드별 출현 시기를 살펴보면, ‘翻译策略(번역전략)’과 ‘英译(영역)’은 최근에 사용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이지만 ‘英译(영역)’은 ‘翻译策略(번역전략)’보다 더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와 반대로 ‘科技翻译(과학기술번역)’과 ‘科技英语(과학기술영어)’에 관한 연구는 과거에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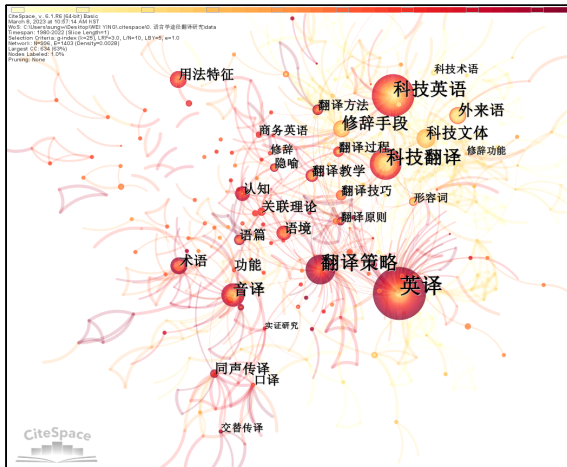


그림 15. 언어학적 번역 키워드 분석 시각화 결과

주제 차원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科技翻译(과학기술번역)’, ‘科技英语(과학기술영어)’, ‘科技文体(과학기술 텍스트 문체)’ 등과 같이 과학기술 번역에 관한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일찍이 과학기술 분야의 번역에 관심을 가졌으며 양적으로도 관련 연구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현 시기를 보면, <그림 15>를 대략 좌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측은 주로 연한 노란색으로 일찍 출현한 키워드가 모여 있다. ‘科技翻译(과학기술번역)’, ‘科技英语(과학기술영어)’ 외에 ‘科技文体(과학기술 텍스트 문체)’, ‘修辞手段(수사방법)’, ‘外来语(외래어)’ 등이 보인다. 반대로 좌측에 위치한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최근의 관심 주제임을 보여주는데 ‘翻译教学(번역교육)’, ‘翻译策略(번역전략)’, ‘翻译过程(번역과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认知(인지)’, ‘隐喻(은유)’, ‘关联理论(관련성이론)’ 등 인지언어학, ‘语境(맥락)’, ‘语篇(텍스트)’ 등 텍스트언어학, ‘同声传译(동시통역)’, ‘口译(통역)’, ‘交替传译(순차통역)’ 등 통역 관련 연구 또한 최근에 늘고 있다.

이를 ‘키워드 인용 격변 분석’으로 살펴보면 키워드 사용의 시기별 양상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키워드 인용 격변이란 출현 빈도가 단기간에 급증하거나 단기간에 새로 생겨나 그 사용 빈도가 높은 현상을 말한다. 키워드 인용 격변을 통해서 특정 시기 해당 분야의 관심 주제 또는 신생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CiteSpace의 격변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그림 1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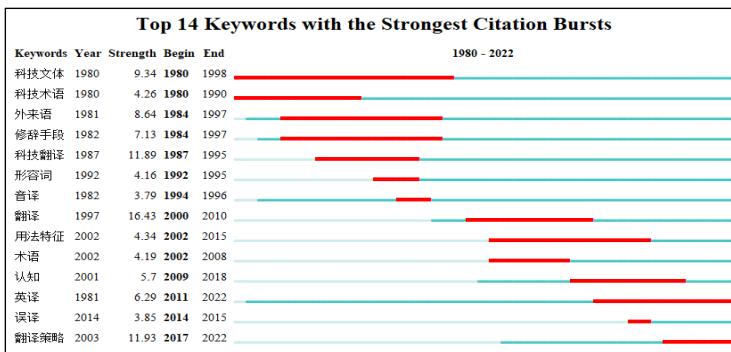


그림 16. 키워드 인용 격변 분석 결과

격변이 일어난 키워드로 14개가 꼽힌다. 격변의 출현 시기를 보면 ‘科技文体(과학기술 텍스트 문체)’, ‘科技术语(과학기술 전문용어)’, ‘外来语(외래어)’, ‘修辞手

段(수사방법)’, ‘科技翻译(과학기술번역)’, ‘形容词(형용사)’, ‘音译(음역)’, ‘翻译(번역)’, ‘用法特征(용법특징)’, ‘术语(전문용어)’, ‘认知(인지)’, ‘英译(영역)’, ‘误译(오역)’, ‘翻译策略(번역전략)’ 순이다.

‘科技文体(과학기술 텍스트 문체)’, ‘科技术语(과학기술 전문용어)’, ‘外来语(외래어)’, ‘修辞手段(수사방법)’, ‘科技翻译(과학기술번역)’의 격변 시기는 각각 1980~1998, 1984~1990, 1984~1997, 1984~1997, 1987~1995년이다. 이를 통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는 과학기술 텍스트에 주목하였고 외래어와 수사 방식의 번역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로는 ‘认知(인지)’, ‘英译(영역)’, ‘翻译策略(번역전략)’ 등이 비교적 강한 격변을 보였는데 격변 시기는 2009~2018, 2011~2022, 2017~2022로 나타났다. 이로써 2000년대 들어 인지 측면에서 번역을 분석한 연구와 중국어 텍스트의 영어 번역 및 번역전략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3. 피인용 분석

피인용지수는 논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피인용지수가 높은 논문은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관심 주제를 파악하거나 학문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된다. 『中国翻译』, 『上海翻译』, 『中国科技翻译』 3개 학술지에 게재된 1,717편의 언어학적 번역연구 논문에서 피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20편을 추려보면 <표17>과 같다.

표 17. 피인용지수가 높은 논문 TOP20

순위	논문 제목	저자	학술지	발표 연도	피인용량 ⁴⁾
1	翻译:选择与顺应 ——语用顺应论视角下的翻译研究	宋志平	中国翻译	2004	937
2	认知语言学的翻译观	王寅	中国翻译	2005	671
3	论语义翻译和交际翻译	原虹	中国科技翻译	2003	646
4	可译性及零翻译	邱懋如	中国翻译	2001	638
5	语篇语言学与翻译研究	张美芳 黄国文	中国翻译	2002	608

6	语境关系顺应论对词义选择的制约	戈玲玲	中国科技翻译	2001	535
7	论译制片翻译中的四对主要矛盾	赵春梅	中国翻译	2002	525
8	原作意图与翻译策略	贾文波	中国翻译	2002	509
9	关联理论对翻译解释的局限性	王斌	中国翻译	2000	499
10	旅游翻译不可忽视民族审美差异	贾文波	上海科技翻译	2003	468
11	纽马克论交际翻译与语义翻译 ²⁵⁾	林小芹	中国翻译	1987	441
12	直接翻译 ——关联翻译理论的一个重要概念	张春柏	中国翻译	2003	379
13	关联翻译理论研究的回顾与展望	王建国	中国翻译	2005	370
14	关联理论对翻译标准的解释力	孟建钢	中国科技翻译	2001	365
15	外宣翻译中“认同”的建立	陈小慰	中国翻译	2007	344
16	冗余信息与增译和省译	田艳	中国翻译	2001	329
17	概念整合与翻译	王斌	中国翻译	2001	326
18	论文学文体学在翻译学科建设中的重要性	申丹	中国翻译	2002	318
19	跨文化意识——导游词译者之必备 ——兼评《走遍中国》英译本	陈刚	中国翻译	2002	302
20	文本类型的翻译策略导向 ——“异化”“归化”讨论后的思考	贾文波	上海科技翻译	2004	292

<표17>에서 열거한 20편의 논문은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되어 언어학적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높은 인용도를 보인다. 이로써 2000년대는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로 판단되며 전체 20편 중 3/4에 해당하는 15편이 『中国翻译』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中国翻译』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피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논문은 송즈핑(宋志平)이 2004년에 『中国翻译』에 발표한 「翻译: 选择与顺应——语用顺应论视角下的翻译研究(번역: 선택과 적응——화용적 적응이론 시각에서의 번역연구)」이다. 송즈핑(2004)은 Jef Verschueren이 화용론적 관점에서 제시한 적응이론을 번역연구에 적용하였는데 Jef Verschueren에 따르면 언어의 사용은 선택의 과정이다. 사람들이 언어의 사용 과정에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어에 가변성, 타협성, 적응성²⁶⁾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

24) ‘피인용량’은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편수를 뜻하며 본고에서는 피인용지수로 사용한다.

25) 해당 논문은 CNKI에서 원문 보기를 제공하지 않아 상세한 내용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 즉, 언어는 일련의 선택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하는데(가변성) 사람들이 일정한 원칙과 전략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타협성) 언어 사용자는 선택지에서 융통성 있게 선택하여 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적응성). 이를 번역 과정에 적용하면, 번역은 원천 텍스트의 선택부터 번역문의 완성까지 일련의 선택 과정으로 모든 단계에서 여러 가능한 선택지 중 언어 내적, 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유연하게 선택하며 최종적으로 문화 간 소통의 목적을 달성한다.

Jef Verschueren의 이론은 언어의 역동성과 두각성을 강조하는데 역동성이란 의미가 역동적인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두각성이란 언어의 선택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가 스스로의 선택을 의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번역연구에서는 Nida의 ‘역동적 등가’에서부터 역동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번역자 스스로 선택을 인지한다는 번역과정에서의 두각성으로 번역 이론의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송즈핑은 Jef Verschueren의 이론이 사회, 문화, 인지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번역 현상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해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보았다. 피인용지수가 높은 논문 중 거링링(戈玲玲 2001) 역시 「语境关系顺应论对词义选择的制约(문맥 적응 이론으로 본 어휘 선택의 제약)」에서 Jef Verschueren의 이론에 기반한 번역 과정의 어휘선택 문제를 다루었다.

피인용지수가 두번째로 높은 논문은 왕인(王寅)이 2005년에 『中国翻译』에 발표한 「认知语言学的翻译观(인지언어학에 기초한 번역관)」이다. 왕인(2005)은 인지언어학의 기본 개념을 차용하여 번역의 인지언어학적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에 따르면 번역이란 현실 체험을 가진 인지 주체가 참여하는 다중상호작용에 기반한 인지 활동이다(王寅 2005: 17). 여기서 번역자는 원천 텍스트에 포함된 여러 의미를 이해한 후, 이를 도착 언어로 전달하는데 원저자가 묘사한 현실 세계와 인지 세계를 번역 텍스트에서 철저히 그려낸다. 이 모델은 번역의 체험성, 상호작용성, 창작성을 강조하는데 체험성이란 인간의 모든 인지 활동이 현실 세계에 기초하며 번역은 인지 활동이기 때문에 체험성의 특성을 띤다. 상호작용성은 번역 활동의 주체(원저자, 번역자, 독자)와 현실, 주체와 원천 텍스트, 주체와 도착 텍스트, 그리고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원작과 번역문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원저자와 번역문 독자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창작성은 번역 활동의 주체, 즉

26) Jef Verschueren이 주창한 용어의 번역은 『화용론 이해』(김영순 외 역 2003)를 참조했다.

인지 활동 주체의 주관성을 강조하는데 다른 문화권에 속한 원저자와 번역자는 인지 방식의 차이 때문에 동일 텍스트에 대한 이해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인지 세계의 차이 또는 불일치가 불가피함으로 번역 활동의 주체는 창작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번역의 단위를 텍스트로 하는 텍스트성, 원저자, 텍스트, 독자 간에 조화를 추구하는 타협성, 현실 세계와 인지 세계를 모두 강조하는 ‘두 개의 세계성’은 번역의 인지언어학적 모델의 주요 요소이다.

그 다음으로 위안홍(原虹 2003)의 「论语义翻译和交际翻译(의미 중심의 번역과 소통 중심의 번역에 대하여)」는 뉴마크(Newmark)가 제시한 의미 중심의 번역과 소통 중심의 번역 개념을 비교하였으며 추마오루(2001)는 「可译性及零翻译(번역 가능성과 영번역)」에서 중국어와 영어 간 통사구조, 어휘 의미의 범위, 표현 방식, 사회문화의 차이로부터 번역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언어 간의 차이로 인해 번역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되는 영번역²⁷⁾ 현상을 고찰하였다. 이 두 편의 논문은 전통적인 언어학적 관점에서 번역을 다룬 연구이다.

다섯 번째로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은 장메이팡과 황귀원(张美芳, 黄国文)이 2002년 『中国翻译』에 발표한 「语篇语言学与翻译研究(텍스트언어학과 번역연구)」이다. 장메이팡과 황귀원(2002)은 텍스트 언어학의 개념²⁸⁾을 소개하고 대표 학자의 이론을 정리하면서 번역의 전통 언어학적 접근 방식과 텍스트언어학적 접근 방식의 차이점을 밝혔다. 첫째, 어휘와 문장을 중요시하는 전통 언어학적 방식과 달리 텍스트언어학적 접근은 의미가 텍스트 전체의 언어 구조를 형성한다고 본다. 둘째, 전통 언어학적 방식은 어휘, 문장 층위의 등가를 추구하는 반면, 텍스트 언어학적 방식은 소통의 측면에서 텍스트 등가를 다룬다. 셋째, 전통 언어학적 방식은 연구대상을 언어로만 국한시키는 반면, 텍스트언어학적 방식은 언어 체계의 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 요소(상황적 문맥과 문화적 문맥)도 연구대상에 포함한다(张美芳, 黄国文 2002: 4). 이들은 특히 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미와 형식 간의 관계, 일곱 가지 텍스트성²⁹⁾, 문맥과 언어 선택의 관계, 텍스트의 장르와 상황적 문맥, 함축적 의미의 해석 등 텍스트언어학적 번역연

27) 영번역은 음역 관련 연구의 고빈도 키워드로 자세한 내용은 각주 13) 참조.

28) 장메이팡과 황귀원(2002)에서는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과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을 구분하지 않고 텍스트언어학(text linguistics)으로 통칭했다.

29) Beaugrande와 Dressler(1981), Neubert와 Shreve(1992)에 따르면 텍스트는 의도성, 용인성, 상황성, 정보성, 응집성, 결속성, 상호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속성을 갖는다(张美芳, 黄国文 2002: 5에서 재인용).

구의 주요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피인용지수가 높은 논문 1위부터 5위까지 중 두 편은 전통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이며 나머지 세 편은 각각 화용론, 인지언어학, 텍스트언어학의 개념을 번역연구에 적용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텍스트를 분석하기보다는 언어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번역연구와의 접목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들 논문에 대한 피인용량은 모두 600 이상으로 나타나 중국의 번역연구에 있어 이들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선 논문 게재 추이 분석 결과를 보면 2000년대부터 화용, 담화, 인지/신경 분야의 연구가 급증했던 바, 언어학적 번역연구가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들 논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피인용지수가 높은 논문을 살펴보면, 관련성이론에 주목한 논문이 4편³⁰⁾, 번역 전략을 다룬 논문이 4편³¹⁾, 문화 차이의 측면에서 국가홍보, 여행가이드 등 특정 장르의 번역을 분석한 논문이 3편³²⁾, 인지 차원에서 개념적 은유를 다룬 논문이 1편³³⁾, 번역학에서의 문체론 적용과 그 중요성을 논한 논문이 1편³⁴⁾이다.

이로써 언어학적 번역연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방법론적 접근으로는 전통 언어학적 관점, 화용론, 인지언어학, 텍스트언어학을 들 수 있으며, 2000년대부터 화용, 담화, 인지/신경 분야의 연구가 빠르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관련성이론을 적용하여 번역의 문제를 다루거나 문화 차이 측면에서의 접근이 시도되었고 번역학에서의 문체론 적용과 그 중요성에 대한 접근이 있었다.

4. 나가는 말

『中国翻译』, 『上海翻译』, 『中国科技翻译』 3개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23년 2월 까지 게재된 총 12,814편의 논문 가운데 언어학적 접근 관련 논문은 전체의 14%

30) 「关联理论对翻译解释的局限性」(2000), 「直接翻译—关联翻译理论的一个重要概念」(2003), 「关联翻译理论研究的回顾与展望」(2005), 「关联理论对翻译标准的解释力」(2001)

31) 「论译制片翻译中的四对主要矛盾」(2002), 「原作意图与翻译策略」(2002), 「冗余信息与增译和省译」(2001), 「文本类型的翻译策略导向——“异化”“归化”讨论后的思考」(2004)

32) 「旅游翻译不可忽视民族审美差异」(2003), 「外宣翻译中“认同”的建立」(2007), 「跨文化意识——导游词译者之必备——兼评《走遍中国》英译本」(2002)

33) 「概念整合与翻译」(2001)

34) 「论文学文体学在翻译学科建设中的重要性」(2002)

인 1,717편으로 중국의 번역 연구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전체 번역 연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들 언어학적 논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과학기술 텍스트에 주목하였고 외래어와 수사방식의 번역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2000년대 들어 인지 측면에서 번역을 분석한 연구가 많아졌고 중국어 텍스트의 영어번역과 번역전략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최근에는 인지언어학, 텍스트언어학적 접근과 통역 관련 연구가 늘고 있다.

둘째, 언어적으로는 영어 관련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과거에는 영어 자체의 특징에 주목했다면 최근에는 번역에서 영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 실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가 번역의 실천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문장구조’나 ‘문법성분’ 등 전통 문법에 속한 키워드는 주로 과거에 주목 받았던 반면, 최근 연구에서는 ‘机器翻译(기계번역)’, ‘화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언어학적 번역연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방법론으로는 전통 언어학적 관점 외에 화용론, 인지언어학, 텍스트언어학을 들 수 있으며, 2000년대부터 화용, 담화, 인지/신경 분야의 연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다섯째, 언어학적 번역연구의 모든 분야에서 ‘번역전략’이 등장한다. 중국에서는 과거 ‘翻译策略(번역전략)’이 ‘翻译方法(번역방법)’이나 ‘翻译技巧(번역기법)’과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었으며 2000년 이전엔 학자 대부분이 ‘翻译方法(번역방법)’이나 ‘翻译技巧(번역기법)’을 사용한 반면, 2000년 이후엔 ‘翻译策略(번역전략)’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실제 연구문헌을 바탕으로 게재량, 키워드, 피인용 중심의 양적분석을 통해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연구 흐름을 통시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가 중국의 번역연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언어학적 접근 이외에도 중국 번역학의 전체를 조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혜람·웨이잉. (2020). 「중국의 언어학적 번역 연구 동향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18(2): 57-77.
- De Beaugrande, R. and Dressler, W.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 Chen, C. (2006). CiteSpace II: Detecting and visualizing emerging trends and trends and transiter patterns in scientific litera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7(3): 359-377.
- Neubert, A. and Shreve, G. M. (1992). *Translation as text*. Kent: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Shuttleworth, M. and Cowie, M.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
- Verschuere, Jef. (2003). 『화용론 이해』(김영순, 지인영, 이정화 역). 서울: 동인.
- 陈浪. (2008). 『当代语言学途径翻译研究的新进展』. 上海外国语大学博士学位论文.
- 陈悦, 陈超美, 胡志刚, 王贤文. (2014). 『引文空间分析原理与应用』. 北京: 科学出版社.
- 方梦之. (2008). 「从译学术语看翻译研究的走向」. 『上海翻译』 (01):5-9.
- 戈玲玲. (2001). 「语境关系顺应论对词义选择的制约」. 『中国科技翻译』 14(4): 27-29+39.
- 韩江洪. (2015). 「国内翻译策略研究述评」. 『外语与外语教学』 (01): 75-80.
- 郝军, 史国强. (2010). 「当代中国翻译理论研究的语言学视角」. 『社会科学辑刊』 (02): 204-206.
- 黄希玲, 孙迎春. (2003). 「翻译研究途径凝思」. 『中国科技翻译』 (04):7-11.
- 李娜. (2014). 「论翻译研究语言学途径」. 『河北工程大学学报(社会科学版)』 (02): 120-123.
- 刘必庆. (1996). 「翻译理论研究展望」. 『中国翻译』 (06):2-7.
- 刘香. (2010). 「国内近五年翻译研究的语言学视角」. 『科技信息』 (36): 142.
- 吕俊. (2001). 「结构·解构·建构——我国翻译研究的回顾与展望」. 『中国翻译』 (06): 8-11.
- 倪传斌, 刘治. (2005). 「语料库数据驱动技术在科技翻译教学中的应用」. 『中国科技翻译』 (04): 24-27.
- 邱懋如. (2001). 「可译性及零翻译」. 『中国翻译』 22(1): 24-27.
- 冉诗洋, 李德凤. (2011). 「翻译研究的广度延伸」. 『中国科技翻译』 24(01): 29-32+40.
- 孙艳伟. (2013). 「专利摘要汉译英常见错误探析」. 『中国科技翻译』 (02): 27-30.
- 宋志平. (2004). 「翻译: 选择与顺应——语用顺应论视角下的翻译研究」. 『中国翻译』 (02): 19-23.
- 王彬, 欧阳钊. (2002). 「英语含蓄否定句分类及汉译研究」. 『中国科技翻译』 (02): 21-24.
- 王寅. (2005). 「认知语言学的翻译观」. 『中国翻译』 26(5): 15-20.
- 魏清光. (2018). 「时代主题变迁对翻译研究范式的影响」. 『上海翻译』 (02): 1-5.
- 熊兵. (2014). 「翻译研究中的概念混淆——以“翻译策略”、“翻译方法”和“翻译技巧”为例」. 『中国翻译』 35(03): 82-88.
- 薛建华. (2013). 「翻译研究的语言学视角」. 『海外英语』 (17): 159-172.
- 原虹. (2003). 「论语义翻译和交际翻译」. 『中国科技翻译』 16(2): 1-2.
- 张美芳, 黄国文. (2002). 「语篇语言学与翻译研究」. 『中国翻译』 (03): 3-7.
- 赵踐. (2011). 「语言学视角下的中国翻译理论透视」. 『辽宁医学院学报(社会科学版)』 (04): 116-118.

This paper was received on 8 May 2023; revised on 14 June 2023; and accepted on 20 June 2023.

Author's email address

hyerim@ewha.ac.kr

About the author

Hyerim Kim i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부록 1. 연도별 논문 게재량

	언어학적 번역연구	음역	통사 구조	의미	수사	문체	화용	담화	문화	사회	인지 신경
1980	4	3	0	0	0	1	0	0	0	0	0
1981	8	3	2	0	0	2	0	0	1	0	0
1982	8	2	3	1	1	1	0	0	0	0	0
1983	9	2	4	0	0	2	0	0	1	0	0
1984	18	6	2	2	6	1	0	1	2	0	0
1985	8	0	1	0	2	2	0	0	3	1	0
1986	18	3	5	3	3	3	0	0	1	0	1
1987	25	3	8	4	5	2	1	2	3	0	0
1988	24	3	7	3	4	2	0	0	6	1	0
1989	31	8	3	3	9	6	1	0	6	0	0
1990	26	6	4	3	3	4	0	2	4	0	0
1991	18	2	3	0	3	5	1	0	4	2	0
1992	27	7	7	1	3	7	1	0	2	0	1
1993	24	11	3	2	3	2	1	1	5	0	0
1994	45	12	5	4	8	9	7	2	4	0	0
1995	27	5	6	4	7	3	1	3	0	0	0
1996	31	7	6	4	5	4	0	2	6	0	1
1997	31	7	8	5	4	2	1	1	5	1	1
1998	31	8	5	6	3	4	1	2	4	0	0
1999	47	3	6	11	7	9	4	6	5	0	2
2000	53	2	6	11	5	9	4	11	3	1	8
2001	49	8	7	9	3	3	3	7	8	0	10
2002	58	6	11	15	7	5	13	9	3	0	3
2003	73	7	9	18	6	13	9	9	6	0	8
2004	58	2	7	16	9	8	11	13	3	0	7
2005	67	6	12	15	1	11	11	10	6	0	14
2006	56	11	9	10	3	8	3	12	6	0	5
2007	56	2	5	13	5	9	9	9	7	0	8
2008	55	13	9	13	7	4	8	9	3	0	7
2009	51	2	7	12	3	10	4	8	4	0	12
2010	66	6	10	14	5	9	8	11	3	0	17
2011	59	12	9	10	8	5	3	11	2	0	12
2012	60	9	2	15	9	8	5	6	6	1	12
2013	42	7	7	11	4	4	4	7	5	0	7
2014	48	10	3	11	4	8	5	5	5	0	7
2015	60	8	7	16	3	9	11	7	9	0	9
2016	45	3	2	13	4	8	7	4	1	2	14
2017	44	13	4	3	2	4	2	5	4	1	9
2018	50	13	3	12	5	3	6	5	0	0	15
2019	55	9	6	9	4	5	7	1	3	0	18
2020	43	13	8	3	6	1	4	5	1	0	12
2021	51	10	5	6	6	4	3	9	0	0	15
2022	55	10	7	7	8	6	3	9	0	0	16
2023 (2월까지)	3	0	0	0	1	0	0	0	0	0	2
합계	1717	283	243	318	194	225	162	204	150	10	253

부록 2. 키워드 합병 목록

분류	대표 키워드	합병된 키워드
음역	术语	术语翻译
	英译	汉译英
통사	英译	汉译英/汉英翻译
의미	汉英翻译	汉译英
수사	修辞手段	修辞手法/修辞格
	英译	汉译英
	修辞功能	修辞作用
문체	文体特点	文体特征
	英译	汉译英/汉英翻译
담화	英译	汉译英/中译英
	连贯	语篇连贯
문화	外来语	外来词/外来词语
	新词语	新词/新词汇/新词新义/新词新语/汉语新词/英语新词
	科技词汇	科技术语
	英译	汉译英
인지신경	口译	口译研究